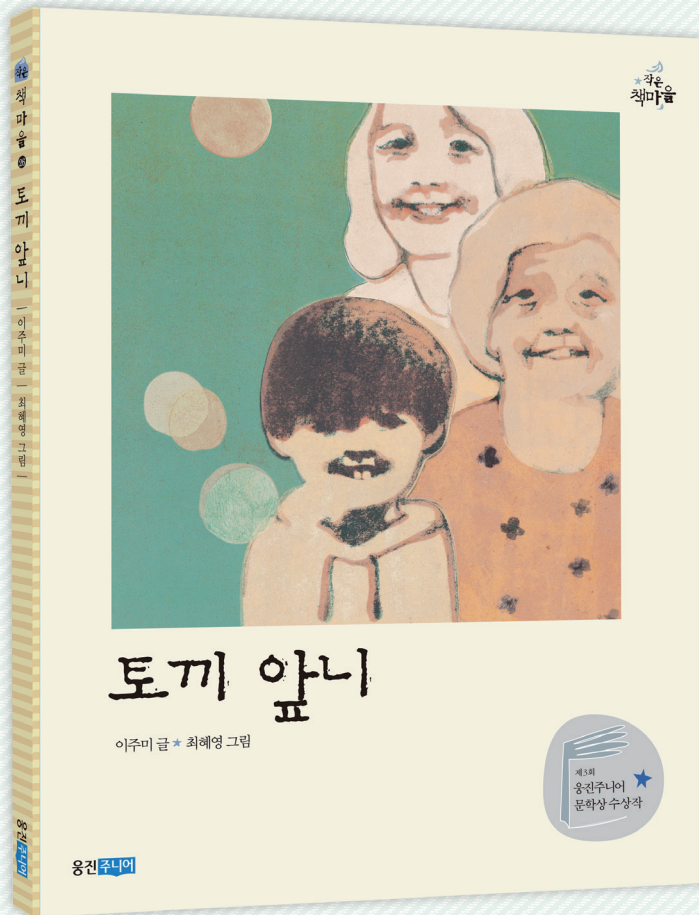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3학년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이주미 글 | 최혜영 그림 | 웅진주니어 | 93쪽

##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토끼 앞니〉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토끼 앞니'를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고장 난 밥통은 고장 난 밥통대로, 토끼 앞니는 토끼 앞니대로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 넓고 오래된 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성이 빛나며,  
사물에 깃든 생명과 가치를 곱씹어 보게 하는 미덕이 충만한 작품이다.

- 심사위원 황선미, 이상권

① ‘세상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찾아 쓰고, 이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지 쓰세요.

⇒

② ㉠의 문장에서 뜻을 모르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보세요.

⇒

## 어휘력 속속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토끼 앞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다음에 다시 앞니가 생기면 너무 많이 자라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 내 눈에 눈물이 어룡거려서 그랬는지 밥통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 “아이고 그놈 양증맞게 생긴 게 영리하기도 하다.”
  - 나도 모르게 아이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스케치북을 빼앗았어요.
  - 잇몸뿐인 외할머니는 고슬고슬한 밥 대신 엄마가 끊인 호박죽을 먹었어요.
- (나) · 그 누나가 통화를 하다가 이를 보이며 웃었어요. 어찌면 그렇게 이가 가지런할까요. 정말 부러웠어요. 내 ㉠     가 바로 토끼 앞니거든요.
- (다) · 너무 작은 소리들이라서 외할머니 귀에는 잘 안 들리겠지만 내 귓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     쌓이고 있었어요.  
“나에게 용기를 쥐 볼 테냐? 귀를 한번 움직여 보게.”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좁은 틈을 헤쳐서 넓히다.
- ②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리게 어른거리다.
- ③ 밥 따위가 되지도 질지도 아니하고 알맞다.
- ④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아주 깜찍하다.
- ⑤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보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 ㉡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주 찬찬하게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하는 모양.

##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토끼 앞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그러더니 그 자리에 (     )이 트듯 새 앞니가 올라왔어요.
- “엄마, (     )돼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물건을 만들어 내지 않아서 고무 패킹을 바꿔 질 수가 없대요.”
  - “제가 공장 (     )를 다 뒤져서 남은 부품이 있나 확인한 뒤에 전화 드릴게요.”
  - 현관문을 열자마자 압력 밥솥 (     )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 동물의 생김새를 조사해 보니까 동물들은 자기 (     )끼리는 털 색깔도, 꼬리 모양이나 귀 모양도 다 비슷했어요.
- (나) · 바로 그 순간 나는 외할머니 입을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보았어요. 입술 사이에서
- ㉠고르고 반듯한 이가 반짝거렸죠.
- (나) · “한 번 ㉡같은 이는 다시 안 나리라.”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단종 : 생산을 중단함.
- ② 재고 : 창고에 있는 물건.
- ③ 움 : 풀이나 나무에 새로 돋아 나오는 싹.
- ④ 추 : 끈에 매달려 늘어진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⑤ 종 : 생물 분류의 기초 단위. 속(屬)의 아래이며 상호 정상적인 유성 생식을 할 수 있는 개체군이다.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마중

이름 :

💡 다음 〈토끼 앞니〉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날, 잇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움이 트듯 새 앞니가 올라왔어요. / 새 앞니는 아주 빨리 자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새 앞니는 커다란 자랑거리였어요. / 그런데 앞니가 너무 많이 자라 버린 거예요. 입술을 다물어도 앞니가 보일 만큼요. 나는 자꾸만 윗입술로 앞니를 덮으려다 손가락으로 윗입술을 누르고 다니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어요. / 내가 양전한 이유가 앞니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요. 나는 학교에서도 앞니를 보이기 싫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스스로 발표를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누구랑 싸우지도 않고 말썽을 피워 벌 받은 적도 없어요.

(나) “택배가 편하긴 하겠다만 물건 잃어버릴까 걱정도 되고.”

그러고는 외할머니가 정답게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새끼 얼마나 컸나 보고 싶기도 하고.” / 바로 그 순간 나는 외할머니 입을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보았어요. 입술 사이에서 고르고 반듯한 이가 반짝거렸죠. 나는 대번에 외할머니가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다음에 앞니가 빠져서 다시 날 때는 꼭 외할머니 이를 닦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1) (가)에서 ‘나’(경호)의 앞니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근질거렸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에 새 앞니가 올라와 아주 <input type="text"/> 자랐고, 새 앞니는 커다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였음.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을 다물어도 앞니 가 보일 만큼 너무 많이 자랐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로 앞니 를 덮으려는 <input type="text"/> 이 생 겼음.	➔	‘나’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유는 앞니 때문이고, <input type="text"/> 에 서 <input type="text"/> 을 많이 하지도 아 이들 앞에 서지도 않았음.
--	---	---	---	--

2) (나)에서 ‘나’(경호)가 전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를 쓰시오.

⇨

## 고물 밥통

이름 :

💡 다음 〈토끼 앞니〉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약과에 새 잇자국을 내며 방금 난 잇자국을 야금야금 먹어 치우는 동안 약과가 네 개나 없어졌어요. / “단 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 외할머니가 걱정했죠.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 “이가 썩어서 빠지면 또 날 텐데요, 뭐.”

나는 정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외할머니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듣기 전까지 말이에요. / “한 번 같은 이는 다시 안 나니라.” / 나는 약과를 베어 문 채 퐁퐁 얼어붙었어요. / “정말이에요?” / 다음에 다시 앞니가 생기면 너무 많이 자라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토끼 앞니 때문에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걸요.’ / 내 표정이 시무룩해지자 외할머니가 눈치를 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화도 났어요. / “머리카락은 빠지면 또 나고 또 나고 하잖아요! 발톱도 빠지면 또 나고 또 빠지면 또 나고 그러잖아요!” / 외할머니한테 대들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어요. / 즉시 엄마가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 “외할머니께 버릇없이 행동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 1) 윗글에서 ‘나’(경호)는 한 번 같은 이는 다시 안 난다는 ‘외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화내고 있다. 이러한 ‘나’(경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 2) 윗글에서 ‘나’(경호)가 ‘엄마’에게 엄한 목소리로 경고를 받은 이유를 쓰시오.

⇨

# 틀니

이름 :

💡 다음 <토끼 앞니>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할머니가 스탠드를 앞에 놓고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그러더니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얼마 있다 외할머니가 나도 알아들을 수 있게 큰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한번 켜 볼까.” / 외할머니가 전기 코드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글썩 스탠드가 ㉠자다 깐 아이처럼 잠시 깜빡깜빡하더니 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 내가 조바심이 나서 물어봤지만 외할머니는 마냥 웃기만 했어요.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했어요. / “마술이에요?” / “용기를 줬지.” /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외할머니가 고른 이를 보이며 불빛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나)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킁킁한 외할머니 입안을 살피더니 나에게 손전등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 나는 얼른 손전등을 가져다 외할머니 입안을 비췌죠. /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내 앞니가 다시 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말았어요. 글썩, 외할머니의 이가 가짜였던 거예요. 외할머니가 손가락을 입안에 넣더니 이를 통째로 꺼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들고 있던 손전등을 놓아 버릴 뻔했어요. / 틀니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가 하나도 없는 어른 입안도 처음 봤고요. 나는 엄마 등 뒤에 붙어 ㉡마녀처럼 변해 버린 외할머니 얼굴을 훑쳐봤어요.

1) (가)~(나)에서 ‘나’(경호)와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이다.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p>(가): 외할머니가 중얼거리다가 □□의 □□□□을 누르자 □이 환하게 켜졌고, ‘나’가 어떻게 했냐고 묻자 외할머니는 □□를 줬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음.</p>	<p>(나): ‘나’는 □□□□으로 외할머니 입안을 비췌다가 외할머니의 이가 □□인 것을 알았고, 처음으로 □□와 이가 하나도 없는 □□□□을 보고 너무 놀랐음.</p>
---	--

2) (가)~(나)에서 빗대어 표현한 말인 ㉠과 ㉡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

⇒ ㉠ :

㉡ :



# 별명

이름 :

💡 다음 〈토끼 앞니〉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엄마하고도 외할머니하고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내 별명은 항상 ‘토끼’였어요. 아마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더라도 그곳 사람들도 나를 토끼라고 부를 거예요. 나는 토끼처럼 생겼으니까요. / 나는 내 별명이 몹시 싫어요. 철우도 나만큼 자기 별명이 싫을 거예요. / 동물의 생김새를 조사해 보니까 동물들은 자기 종끼리는 털 색깔도, 꼬리 모양이나 귀 모양도 다 비슷했어요. 북극곰들처럼, 토끼들처럼, 새들이나 벌레들처럼 사람도 자기 종끼리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놀림을 받지 않을 텐데요.

(나)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 엄마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우리 아이 토끼 앞니는 문제가 없을까요?” /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 충치와 잇몸 병이 생기기 쉬워요. 말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요.” / “토끼라고 놀림을 만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 엄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내 귀에는 거의 다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목소리도 들렸는데 어려운 말을 써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엄마가 푸 한숨을 쉬었어요.

1) (가)~(나)에 나타난 ‘나’(경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토끼처럼 생긴 ‘나’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은 항상 ‘토끼’였고, 아마 ‘나’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 아무도 없는 <input type="text"/> 에 가더라도 그곳 사람들도 <input type="text"/> 라고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음.	➔	‘나’는 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 몹시 싫었고, 사람도 자기 <input type="text"/> 끼리는 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으로 태어난다면 아무도 <input type="text"/> 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음.
--	---	--

2) (나)에 나타난 ‘나’(경호)의 토끼 앞니의 문제점을 모두 쓰시오.

## 용기 / 배웅

이름 :

💡 다음 <토끼 앞니>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경호!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하면 될까?’

웬지 부끄러워서 외할머니 귀에 들릴 듯 말 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용기를 가지세요.” / 외할머니는 아직도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 “용기를 내세요! 할머니는 당당하고 멋지세요. 전에 밥통 고치러 갔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요.”

내가 제대로 용기를 드렸나 봐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외할머니 귀가 쉴룩쉴룩 움직이더니 소리를 찾는 안테나처럼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나) 철우 목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나를 둘러쌌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용기를 내서 또다시 귀를 쉴룩쉴룩 움직였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죠. 모두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어요. 어떤 아이들은 “한 번만 더 해 봐, 딱 한 번만.” 하면서 내 주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꼭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아주 우쭐해져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1) (가)에서 ‘나’(경호)가 ‘외할머니’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자 ‘외할머니’의 귀가 이리저리 움직였다. ‘나’(경호)가 용기를 주는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2) (나)에서 ‘나’(경호)가 학교 이야기를 아주 우쭐해져서 말했던 이유를 쓰시오.

⇨

##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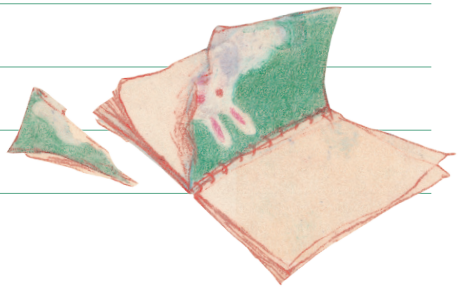
이름 :

1) 다음은 〈토끼 앞니〉에 나온 그림입니다. 각각의 그림을 보고, '나'(경호)와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인지 쓰시오.

		
①	②	③

2) 이 이야기에서 '나'(경호)와 '외할머니'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귀를 움직이고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던 경험을 써 보시오.

⇒





## 정답과 해설

3쪽	<p>(예시답안) 1) 토끼 앞니처럼 생긴 이빨을 가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                  2) 맨 앞에 남자아이가 토끼 앞니를 내보이며 웃고 있고, 바로 뒤에는 곱슬머리 파마를 한 할머니가, 맨 뒤에는 엄마가 모두 비슷하게 토끼 앞니를 내보이며 웃고 있다.                  3) ① 고장 난 밥통과 토끼 앞니는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② ㉠ 감성 :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 미덕 : 아름답고 가룩한 덕행</p>
4쪽	<p>1) ⑤, ②, ④, ①, ③      2) ㉠ : 콤플렉스, ㉡ : 차곡차곡</p>
5쪽	<p>1) ③, ①, ②, ④, ⑤      2) ㉠ : ㉡, ㉢ : ㉣</p>
6쪽	<p>1) 잇몸 자리, 빨리, 자랑거리 / 입술, 윗입술, 버릇 / 암전한, 학교, 말                  2) 외할머니의 이가 고르고 반듯해서</p>
7쪽	<p>1) (예시답안) '나'는 이가 썩어서 빠지면 또 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평생 토끼 앞니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다. '나'는 모자라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것 같다.                  2) 토끼 앞니 때문에 화나서 외할머니에게 자신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말해서</p>
8쪽	<p>1) (가) 스탠드, 전원 버튼, 불, 용기                      (나) 손전등, 가짜, 틀니, 어른 입안                  2) ㉠ : 스탠드, ㉡ : 외할머니 얼굴</p>
9쪽	<p>1) 별명, 아는 사람, 곳, 토끼 / 별명, 종, 똑같은 모습, 놀림                  2)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 충치와 잇몸 병이 생기기 쉽고, 말할 때 불편할 수도 있고, 토끼라고 놀림을 받을 수 있음</p>
10쪽	<p>1) (예시답안) 처음에 '나'는 왠지 부끄러워서 외할머니 귀에 작게 용기를 가지시라고 중얼거렸다. 외할머니가 계속 기다리고 있자 할머니는 당당하고 멋지다며 용기를 내라고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용기를 줄 때에는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2) '나'가 용기를 내서 귀를 움직이자 아이들이 주위에 모여들어서 자신이 꼭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p>
11쪽	<p>1) ① '나'가 외할머니에게 한 번 같은 이는 다시 안 난다는 말을 듣고 실망한 장면                      ② '나'의 엄마가 외할머니의 틀니가 들어 있는 유리컵을 들여다보는 장면                      ③ '나'가 학교에서 귀를 움직이자 주위에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우쭐해하는 장면                  2) 생략</p>



응진 **주니어**

값9,000원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ISBN 978-89-01-10766-0  
ISBN 978-89-01-05987-7(세트)